왼쪽부터 박솔미·박신양·강소라·류수영

# ‘꼴통’ 변호사의 통쾌한 한방

## 웹툰 원작 ‘동네변호사 조들호’ … 28일 KBS 첫방영

28일 시작하는 KBS 2TV 월화극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요즘 귀하다는 ‘개천의 용’ 출신 검사 조들호가 검찰 비리를 고발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해야 할 작품이 많다. 드라마는 작가 해츨링이 포털 네이버에 2년째 연재 중인 웹툰이 원작이다.

같은 웹툰 리메이크작으로, 지난 1일 종영한 tvN ‘치즈인더트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치인트’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중반 이후 주인공 비중이 원작보다 급감한 데 대한 팬들의 극렬한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원작과 리메이크 사이의 절묘한 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연출자인 이정섭 PD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미생’이나 ‘송곳’ 등 웹툰에 충실한 다른 드라마와 달리 우리 작품은 어디로 ‘튈지’ 사실 모르겠다”고 밝혔다.

“각각 캐릭터를 만들면서 배우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이 자꾸 나와요. 한 장면, 한 장면 촬영하면서 배우들과 토론하고 계속 수정하죠. 드라마 작업 현장이 마치 연극 무대 같아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조들호 역에는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박신양(48)이 캐스팅됐다. tvN ‘미생’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강소라(26)가 MBC TV ‘맨도롱 또똣’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나선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장근석과 여진구가 뭉친 SBS TV ‘대박’, 강지환과 성유리가 주연을 맡은 MBC TV ‘몬스터’와 같은 날 함께 출발한다.

드라마 무기는 ‘시원한 한 방’이다. 서민 편에 서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꼴통’ 변호사의 활약을 통해 시청자에게 유쾌함과 통쾌함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법과 법조인에 대한 불신이 큰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진짜 의미를 되찾아주겠다는 목표다.

“제가 (‘배우학교’ 제자들에게) 모든 말이 제게도 기준으로 돌아오겠구나, 저도 그 기준을 적용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제자들과) 똑같은 평가를 받기는 해야죠. (웃음)”

2011년 3월 종영한 SBS TV ‘싸인’ 이후 무려 5년 만에 복귀한 박신양이 소화할 ‘동네변호사’ 조들호 인생은 롤러코스터 그 자체다. 그는 고졸 학력으로 사법고시에서 최고 성적을 냈고, 검사가 된 이후에는 최고 권력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유수 법률사무소 대표의 딸인 장해경(박솔미 분)과도 결혼에 골인한다.

조들호는 3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러나 ‘동네변호사’로 부활, 신출내기 변호사 이은조(강소라)와 함께 부패한 권력에 시원한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한다.

“‘배우학교’는 의미 있는 기획이었기 때문에 출연했고, ‘동네변호사 조들호’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법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어요. 재미뿐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주인공 박신양과 강소라 나이 차는 22살이다. 박신양은 두 배우의 호흡을 묻는 말에 “(부부로 등장하는) 박솔미 씨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10살인데 그 와도 (연기 호흡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강소라 씨와의 연기도 문제가 없다”고 위트 있게 답했다.

조들호를 만나 ‘무늬만 변호사에서 진짜 변호사로 변하는이은조 역을 맡은 강소라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로 이미 크게 성공한 분이라 함께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다가온다”면서 “현장에서 실감이 안 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박솔미는 “박신양은 열정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서 “4년 만에 복귀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4명을 잘 이끌어주고 챙겨준다”고 밝혔다.

이 PD는 “우리 사회에 왜 법이 존재하는지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면서 “법과 변호사가 우리 삶의 동반자요, 친구요, 무언가 지켜주는 수호자로 느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PD는 법정드라마이지만 휴먼드라마라는 점도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들호라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다”면서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과 가족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40대 남자가 새로운 꿈을 찾아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성기 임권택

### CGV아트하우스 부산 서면·서울 압구정

# 임권택·안성기 헌정관 개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CGV아트하우스 압구정에서 22일 오후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의 이름을 딴 헌정관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부터 CGV아트하우스 압구정에는 안성기관이, 부산에 있는 CGV아트하우스 서면에는 임권택관이 각각 문을 열었다.

CGV아트하우스는 앞으로 헌정관에서 관객 한 명이 영화 한 편을 볼 때마다 관람료 매출 가운데 100원을 적립한 뒤 추가로 100원을 더해 한국 독립영화 발전에 200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장성 출신 임 감독은 ‘서편제’, ‘취화선’, ‘천년학’ 등 102편의 영화를 연출하며 칸영화제 감독상, 베를린영화제 명예황금곰상을 받는 등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임 감독은 “나이 80살이 넘어 내 이름을 딴 헌정관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어설픈 짓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겠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이날 개관식에 배우 박중훈과 영화 저널리스트 백은하의 사회로 열린 행사에는 이장호, 김기덕, 류승완, 김한민, 이명세, 신연식 감독, 배우 정재영, 신현준, 박상민 등 영화인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안성기는 ‘기쁜 우리 젊은 날’, ‘칠수와 만수’, ‘화장’ 등 100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50년이 넘게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사랑받고 있다.

/연합뉴스

# 류준열, 지상파 첫 주연

### MBC ‘운빨로맨스’서 황정음과 로맨스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스타 반열에 오른 류준열(30·사진)이 단박에 지상파 드라마 주인공을 꿰찼다.

류준열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3일 “류준열이 오는 5월 방송예정인 MBC TV 수목드라마 ‘운빨로맨스’의 주인공 제수호 역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운빨로맨스’는 맹목적으로 미신을 맹신하는 여자 심보늬가 수식과 과학에 빠진 공대 남자 제수호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려낸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다. 심보늬 역에는 황정음이 출연을 확정한 상태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채널A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40 굿모닝 A | 00 KBS 뉴스광장 | 00 2TV 아침 1~2부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 50 인간극장 | |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br>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 30 KBC 모닝와이드 |
| 8 |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닥터365<br>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
| 9 |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 30 KBS 뉴스 | 00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br>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뉴스<br>45 기분 좋은 날 | 10 좋은 아침 |
| 10 | 20 시사 인사이드35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 10 SBS 뉴스<br>25 SBS 생활경제<br>40 KBC 생활뉴스 |
| 11 | 40 풍문으로 들었SHOW(재) |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 통〉<br>55 안녕 우리말(재) | 0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 00 닥터 365<br>05 토크콘서트 화통 |
| 12 | | 00 KBS 뉴스 12 | 05 인간극장 스페셜 | 00 MBC 정오뉴스<br>20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재) | 00 SBS 12 뉴스<br>50 닥터 365<br>55 남도의 보물 100선 |
| 1 | 10 뉴스특급 | 00 역사저널 그날(재)<br>50 별별가족<br>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 25 옆집의 CEO들 스페셜 |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br>55 TV 블로그 꼼지락(재) |
| 2 | 30 직언직설 | 00 제28회 한국 PD 대상 시상식 | 00 KBS 뉴스타임<br>10 생활의 발견(재) | 20 텔레몬스터(재)<br>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br>55 텔레몬스터(재) | 00 세상발견 유레카(재)<br>55 닥터 365 |
| 3 | | 30 코리언 지오그래픽 +<br>55 튼튼생활체조 |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br>30 자동공부책상 위키 | 00 MBC 뉴스<br>10 헬로키즈 싸이걸스<br>35 프리파라 | 00 3시 뉴스 브리핑 |
| 4 | 00 쾌도난마 | 00 오늘의 경제<br>10 특집 다큐철도 미래를 바꾸다(재) | 00 TV 유치원<br>30 이욱정PD의 자연을 담은 한끼<br>40 동물의 세계 | 0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br>40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강정책 방송연설 | 00 고향이 보인다<br>30 꾸러기 탐구생활 |
| 5 | 40 김승련의 뉴스 TOP10 | 00 KBS 뉴스 5<br>10 제20대 총선 정강정책 연설<br>30 시사진단 | 00 로보텍스<br>30 파파독 | 00 MBC 이브닝 뉴스 | 00 애슬론 또봇<br>30 SBS 뉴스퍼레이드<br>50 KBC 저녁뉴스 |
| 6 |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00 KBS 글로벌24<br>30 2TV 생생정보 | 10 생방송 빛날 |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
| 7 | 20 채널A 종합뉴스 | 00 KBS 뉴스7<br>30 한국인의 밥상 |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br>55 MBC 뉴스데스크 | 00 SBS8 뉴스<br>30 KBC 8 뉴스<br>5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2차지역예선 〈대한민국vs레바논〉 |
| 8 | 20 나는 몸신이다 |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br>55 비타민 |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 |
| 9 | 50 서민갑부 | 00 KBS 뉴스9 | | 30 리얼스토리 눈 | |
| 10 | | 00 KBS 스페셜<br>55 숨 터 |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블랙〉 |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
| 11 | 00 아내가 뿔났다 남편밥상(재) | 00 KBS 뉴스라인<br>40 해외건설 50년 특집 〈다시 쓰는 건설 신화〉 | 10 해피 투게더 | 10 컬투의 MLB 핫토크 | 10 자기야 |
| 12 | 30 어메이징 스토리 싸인(재) |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 25 MBC 뉴스 24<br>50 아시아 프리즘 아름다운 비밀 | 30 나이트 라인 |

###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 토롱라〉
06:10 세계의 눈 〈사자와 친구가 되는 법〉
07:00 지파이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곰디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차돌박이들깨탕, 뚝배기달걀찜〉
11:00 세계테마기행 (재)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모란봉악단〉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얍!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곰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하체 근육을 세운다〉
20:40 다큐오늘 〈다랭이 마을의 봄〉
20:50 세계테마기행 〈사막의 진주,아부다비〉
21:30 한국기행 〈봄길따라 남도 섬을 가다 4부 – 바람의 섬, 여서도〉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마음대로 먹고 살이 빠질까〉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3:50 역사채널 e(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4일(음 2월 16일 乙巳)

子 48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60년생 만망해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72년생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말라. 84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완전하다. 행운의 숫자 : 33, 54

丑 49년생 항심으로서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다. 61년생 어떠한 국량이라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73년생 관점의 차원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85년생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니라. 행운의 숫자 : 79, 81

寅 50년생 상대가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는 의문점이 남는다. 62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74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86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2, 01

卯 51년생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이다. 63년생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국면이다. 75년생 자기와의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87년생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범연 한다면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9, 72

辰 40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52년생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64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76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라. 88년생 주변의 문제와 관련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43, 12

巳 41년생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리라. 53년생 과분하게 언행하지 말라. 65년생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살펴라. 77년생 도모하라. 89년생 기서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행운의 숫자 : 13, 65

午 42년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54년생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66년생 예전에 접해 보지 못했던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78년생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분이 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24

未 43년생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바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55년생 융통이 쉬워지면서 성사된다. 67년생 주체성과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절실한 때이니라. 79년생 동기가 절실해야 알차다. 행운의 숫자 : 95, 66

申 44년생 부탁하러 갔다가 오히려 청을 듣고 오는 격이로다. 56년생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잠자코 있으면서 조처하라. 68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80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9, 76

酉 45년생 깊이 성찰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는다. 57년생 갈급해 왔던 것이 곧 해결되겠다. 69년생 판세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일이 생긴다. 81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길조를 띠게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8, 82

戌 46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58년생 대범하게 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70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82년생 내용물은 내버려 둔 채 외형만으로 인식하다가는 큰일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7, 90

亥 47년생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처지이다. 59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리라. 71년생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83년생 일단 예봉을 피한 다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니라. 행운의 숫자 : 50, 8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